

韓國 教育의 現在와 未來

朴 容 憲

(教育學科)

I. 序 論

教育은 과거의 文化遺産를 바탕으로 하여, 現在의 社會속에서, 그리고 未來를 向해 잠시도 멈출 수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公共 課業인 것이다. 教育이 바탕으로 하는 文化유산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겠으나, 教育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社會는 나라마다 달리 갖는 고유한 특성에서 점차 벗어나 産業化, 情報化, 開放化, 國際化 등과 같은 공통된 특성을 갖게 되고, 教育이 指向하는 未來像은 더욱더 人類共通의 理想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教育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간의 教育교류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겠으나 韓國으로서는 歷史적으로나 地理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日本과의 교류는 더욱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보아 이번 세미나는 비록 韓國의 서울大學校 師範大學과 日本의 筑波大學校 教育學系 간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첫 모임에서는 한국교육의 일반적인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의 現況, 한국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問題, 그 문제해결을 위한 對策의 方向과 研究의 課題들을 간략하게 개관해 보고자 한다. 주어진 시간의 제한으로 이들 項目에 대한 긴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로 줄이고 토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자 한다.

II. 韓國教育의 現況

學校 教育現況에 대해서는 보고자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가 있겠으나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 學制構造(圖1 참조), 各級學校 就學率과 進學率을 포함하는 教育機會(表1 참조), 教育機關, 學生數, 教員數(表2 참조), 教育財政 現況(表3 참조), 教員養成 體制(表4 참조) 등으로 나누어 그 현황을 일괄해서 볼 수 있도록 圖表化해서 부록에 제시해

두었다.

이들중 현재에 중요한 問題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韓國教育의 問題]에서 다시 지적할 것이지만, 현황의 특징적 성격에 대해서만 간략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현행의 基本學制 6·3·3·4制는 中3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1954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나, 그때부터 무상교육은 初等 6년에 한정되고 一般教育은 中3까지 연장하여 시행된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教育法에서는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도서벽지 지역에 한정해서 실시되고 있으며, 96년도까지는 面單位의 全地域으로 확대할 계획을 교육부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도이다.

各級學校 就學 및 進學率은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단히 높은 편이라고 하겠다. 中學校까지는 100%에 가까운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高校의 進學率은 95.7%에 달하고 그 이후의 2年制의 각종 專門大와 4年制의 大學進學率은 45.9%이며 96년도까지는 69.1%까지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다.

現在 學級學校數와 學生數는 <表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나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를 위해 초·중등학교수는 점차 증설하고 특히 고등학교수는 實業分野에서 증가될 전망이고 實業專門大의 數는 크게 증가시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높은 學業欲求를 충족시키기 위해 4年制 職業 技術大學의 확충, 理工系大學의 증설, 開放大, 放送通信大 등의 수와 학생정원수의 확충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各級학교의 敎員 1人當 學生數는 <表 5>에 제시된 바와 같으나 이는 1989年 現在 日本의 小學校(21.5), 中學校(19.6) 高校(19.8), 大學(16.7)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韓國에서도 過大學校와 過密學級을 줄이기 위해 학교수를 크게 늘이고 교원수도 크게 증가시킬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III. 韓國教育의 問題

教育問題는 教育의 未來完成的인 性格과 급격한 社會變動과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社會發展計劃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未來에 대한 希望과 社會發展에 대한 期待를 갖지 말라는 것과 같고 나아가 교육문제의 해결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같은 희망과 기대를 좌절시키는 결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야기되고 있는 큰 교육문제는 教育內的인 質的向上과 그 質的向上을 위한 조건 개선에 모여 있기 보다 사회문제화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따라서 教育

問題는 社會階層間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價値前提的 問題를 수반하고 있어 그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韓國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도 보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수없이 많은 것을 달리 지적할 수 있겠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문제화되어 그 해결을 크게 어렵게 하고 있는 중요한 몇가지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먼저 입시위주의 교육을 들 수 있다. 이는 教育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病理的 原因으로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겠으나 불가피하게 추진되고 있으면서 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은 사라지고 입시만 있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심각해진 입시위주의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개발과 개성신장을 통한 자아실현, 도덕성 및 인간성과 창의성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전인적 교육의 목표달성과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 등의 개선을 저해하는 기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表 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교졸업자의 대학입시를 위한 재수생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여 90년도 현재 무려 33만 5천명이나 되고 있다.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고교재학생과 재수생이 격고 있는 심리적 불안과 갈등은 자연히 비행을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 되어 청소년비행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表 7 참조).

두번째로 지적할 것은 교육관의 혼란문제이다. 교육관의 혼란문제는 한국특유의 理念論爭을 비롯하여 가치관의 혼란 등이 겹쳐 계층간, 교사와 학부모간, 교사간에 갈등과 미찰을 빚게 하고 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 제기되고 있는 이념논쟁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南北分斷과 그 對決過程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국내부의 자진정변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추진과정에 의해서 더욱 격화되어온 것이며 최근에는 교육현장에까지 확대되어 교육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地位指向的 價値觀의 지속과 현실적으로는 학벌위주의 고용관행, 성적위주와 입시위주의 교육관 등이 합쳐 교육정상화를 위한 改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문제로서는 교육여건 및 환경의 낙후성을 들 수 있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表 8 참조)의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施設·設備·敎員 등이 크게 미흡한 상태에 있고, 학교주변의 비교육적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이 크게 零細한 편이며, 私負擔教育費(表 9 참조)가 과다한 것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敎員의 地位'와 '意慾低下 問題'에 관한 것이다. 나라의 將來는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의 成敗는 교원에 달려 있다는 것은 古今東西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

리일 것이다. 교육의 질적향상은 교원의 자질향상에 달려 있겠으나 교원의 자질중 더욱 중요한 것은 긍지와 의욕이라 말하여 좋을 것이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양성 기관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가 미흡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교원에게 기대하는 바는 종전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그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노력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업무량은 과거보다 더 많아지는 등 그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교육의 질적개선은 물론 나라의 장래까지도 심히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IV. 教育改革의 推進

韓國은 당면하는 교육문제를 解決하고 未來社會에 對備하기 위한 교육의 과제를 설정,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구를 설치, 운영해 왔다. 그 첫번째의 것으로 1970년에 [長期綜合教育計劃審議會]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長期綜合教育計劃](1972-1986)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뒤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長期教育發展計劃](1985)등 두차례에 걸친 보고서를 제시한 바도 있다. 그리고 1985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教育改革審議會]가 발족되어 [教育政策綜合構想]을 1987년에 제시한 바 있으며, 그 후인 1989년에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教育政策諮問會議]가 설치되어 [教育發展의 基本構想]을 가장 최근에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교육부의 자문기구서 [中央教育審議會]가 별도로 마련되어(1988) 교육에 관한 건의를 하고 있다.

최근에 설립된 자문기구가 건의한 단기간에 걸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교육개혁의 주요내용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교원임용 제도의 개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환경개선노력, 교육세의 개편 및 양여금도입등이다.

그리고 이들 기구가 제시한 장기교육 개혁의 방향은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교육체제의 합리성고양, 교원의 전문성신장, 건전교육 환경의 조성, 교육행·재정지원의 효율화 및 전문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첫번째의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로서 그 내용요지는 민주시민적자질과 도덕성 함양, 개성과 창의성신장, 남북관계 및 국제정치 질서변화와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등 미래사회에의 대응 능력육성등이다. 이러한 방향의 교육 개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보다 구체적인 과제는 교육과정 결정과정의 합리화, 교육과정 선택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 교육과정의 인간화, 자율적 발견학습 및 교육공학적 기기의 활용

을 통한 실험·실습강화, 평가방법의 다양화 등이다.

普通教育의 영역에서는 의무교육의 확충(유아원교육의 公教育化, 중학교의무교육 확대,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추진 등)과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사학교육의 진흥, 학교운영의 자율성 신장등이 제시되어 있다.

고등교육의 영역에서는 대학류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교육기회의 확충과 개방화, 전문대학교육 기회의 확충과 질적 개선, 방송통신대, 개방대 등의 확충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의 도입, 고등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한 學.研.産.官 협동체제의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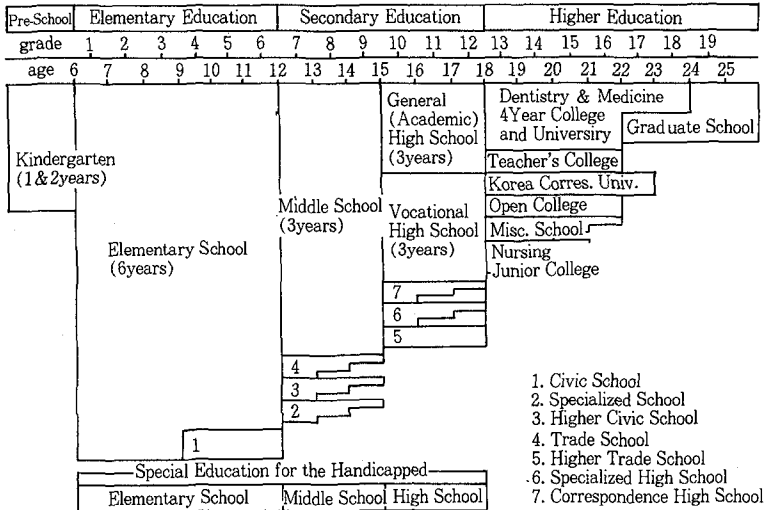
V. 研究課題

教育問題가 많은 것만치 研究課題도 산적해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여 교육정책수립과 현장교육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연구관리체제의 수립도 중요한 새로운 연구과제가 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기존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일도 쉬운 일이아니어서 여기서 이들 현재의 연구동향을 소개할 수도 없다. 다만 앞으로 더욱 주력해야 할 연구과제 몇가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한다.

앞에서 지적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와 교육개혁의 추진과제 등도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연구의 과제들이라고 하겠으나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구과제도 수없이 많다고 하겠다. 그 중에도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創意力, 探究力 등과 같은 轉移價가 높은 기본적 능력을 육성하는 교육방안을 개발하는 연구와 민주적 자질특성을 포함하는 全人教育 내지 人間教育의 방향, 내용,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 전통적 가치규범과 근대적 가치규범과의 조화와 그 구체화에 관한 연구, 그리고 국제화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천연구 등이다.

여기에 예시한 연구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부분적으로 시도해온 것이기는 하나 의욕적으로 지향하고자 제시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주력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 학자들은 항상 이상과 연구를 중요시하나 그것의 실천적 활용여부는 다른 여러 변수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학자들의 연구열과 기대가 흔히 좌절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언젠가는 필요해 질 것에 대비하여 연구를 꾸준히 계속해가야 하는 것이 학자들의 사명이라 하겠다.

V. 附錄：資料(圖表)



<그림 1> 학제구조

<표 1> 교육기회(취학률, 진학률)(1990)

(단위: %)

구 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취학률	32.0	102.5	96.9	87.6	38.1
진학률	—	—	99.8	95.7	45.9

<표 2> 교육기관, 학생수, 교원수 현황(1990)

학교급별	학 교 수	학급(과)수	학 생 수	교 원 수
국민학교	6,335	117,538	4,868,520	135,157
중 학 교	2,474	45,310	2,275,751	67,491
고등학교	1,683	43,233	2,283,806	42,237
전문대학	117	1,264	323,825	958
대학(교)	107	4,009	1,040,166	10,373

〈표 3〉 GNP, 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의 변화추세 (단위: 억원)

구 분	1970	1975	1980	1982	1985	1989	1990
G N P(A)	27,359	100,922	372,050	517,866	712,620	1,371,400	1,526,300
정부예산(B)	4,463	15,870	58,041	93,137	125,324	192,284	226,894
교육예산(C)	785	2,280	10,992	19,164	24,923	40,594	50,624
C/A(%)	2.9	2.4	3.0	3.7	3.2	2.9	3.3
C/B(%)	17.6	14.4	18.9	20.6	19.9	21.1	22.3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의 경제지표, 1989: 교육부, 문교통계년보, 1970-1989: 교육부, 1990년도 예산 규모, 1990.

〈표 4〉 교원양성기관, 학생수, 교원수 현황

교원양성기관 학생정원(1990)

구분	총계			사범대학			교직과정		
	소계	국립	사립	소계	국립	사립	소계	국립	사립
정원(명)	161,677	41,451	120,226	54,280	16,270	38,010	107,397	25,181	82,216
비율(%)	100.0	25.6	74.4	33.6	10.1	23.5	66.4	15.6	50.9

주: 교직과정은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임.

자료: 교육부 교직국, 교원양성기관, 1990.

사범계 대학 설립별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과수	입학정원	학생수	교수수
국·공립	11	203	3,605	19,181	1,269
사 립	26	246	9,795	48,657	1,369

자료: 교육부, 문교통계년보, 1990.

사범계 대학 설립별 교육여건 비교

구 분	학교당 학과수	학과당 학생수	교수당 학생수
국·공립	18.5	94.5	15.1
사 립	9.5	197.8	35.5

자료: 교육부, 문교통계년보, 1990.

〈표 5〉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계	35.6	25.4	24.6	43.9	31.2
국·공립	35.5	24.1	20.7	28.1	24.6
사립	42.3	29.3	27.9	46.2	34.2

자료: 교육부, 문교통계연보, 1990.

〈표 6〉 재수생 증가 현황 (단위: 만명)

구 분	1976	1980	1984	1988	1990
대학정원	6.6	30.5	32.3	29.7	33.0
지원자	29.0	57.5	72.6	76.6	91.1
재수생비율(%)	9.0	22.0	28.0	26.9	33.5

〈표 7〉 각급학교 학생의 퇴폐성 행동경험

응답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도박	33.3%	44.7%	65.8%	39.1%
패싸움	10.8	9.9	10.2	15.4
대마초	0.7	3.7	16.3	2.7
퇴폐업소 출입	1.5	4.8	28.5	25.8
디스코, 고고장 출입	0.7	1.2	6.6	-

자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1985.

〈표 8〉 각급학교 과밀학급 현황(1990)

학교급별	전 국		대도시(특별시 및 직할시)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총학급수	과밀학급수
계	206,081	101,014(49.0)	87,447	61,579(70.4)
국민학교	117,538	34,195(29.1)	46,327	23,371(50.4)
중학교	45,310	30,273(66.8)	20,635	18,708(90.7)
일반고교	27,496	23,955(87.1)	13,480	12,958(96.1)
실업고교	15,737	12,591(80.0)	7,005	6,542(93.4)

주: 1) () 안은 총학급수에 대한 과밀학급수의 비율(%)임.

2) 과밀학급은 51명의 학급을 말함.

3) 대도시 국민학교는 공립에 국한함.

자료: 교육부, 문교통계연보, 1990.

〈표 9〉 총교육비중 사부담 비율(1990) (단위: 백만원)

학교급별	총공·사교육비		총공교육비		총사교육비
	총 액	사부담율(%)	총 액	사부담율(%)	
총 계	6.6	30.5	32.3	29.7	33.0
유치원	387,775	89.6	172,923	76.7	214,852
국민학교	6,716,290	59.7	2,757,210	1.8	3,959,080
중 학교	3,260,750	69.3	1,590,991	37.2	1,669,759
고등학교	3,586,070	80.2	1,797,660	60.6	1,788,40
전문대학	756,204	89.7	348,138	77.7	408,066
교육대학	73,866	46.3	48,129	17.5	25,737
대학(교)	3,343,341	77.9	1,982,146	62.8	1,361,195